第282回國會 (臨時會·閉會中)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5月26日(火)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보고(북한 핵실험 관련)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2.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審査된案件

2.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 2
1. 현안보고(북한 핵실험 관련) ····· 5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토요일 이른 아침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한 시대가 만들어냈던 지도자이셨던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슬픈 마음을 헤아리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도하는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5월 20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선임되어 오셨으나 아직 상견례를 하지 못한 정동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저희 위원회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영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활동하게 된 것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무엇보다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걱정,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정동영 위원님의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회의가 소집되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후에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히 열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장거리 로케트를 발사한 데 이어서 어제 25일 오전 9시 54분에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전격적으로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위중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온 나라와 국민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충격과 슬픔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로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사태의 진상과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보고받고 난국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회의 시작 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외교통상통일 상임위원회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의안 초안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보탬이 되는 여러 좋은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2.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10시40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학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문학진 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급작스러운 서거를 다시 한번 애도해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 4월 22일 있었던 우리 외교부장관의 전혀 적절하지 못했던 발언과 언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외교부장관의 언행은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우리 국회의 위상과 또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짚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4월22일 외통위 회의장에서 우리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민주당 소속의 천정배 의원을 향해서 거의, 거의가 아니라 욕설섞인 막말을 했고 또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를 정면으로 모욕·모독하는 발언을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태연하게 자행을 했습니다. 녹취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봐서 알지만 국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지난 4월 29일 유명환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국무위원석에 나와서 이렇게 국회에 출석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퇴했어야 마땅한 유명환 장관의 현안보고를 듣는 것은 전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를 열어야 할 만큼 어제 있었던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잠시 미뤄 놓는 것이지 결코 장관을 장관으로서 인정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비하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경시하는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잘못이 유감 표명이나 사과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온당하게 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식 사과드린 바와 같이 외통위의 여러 위원님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국회를 없애야 한다는 말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몸싸움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국회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황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말한 것은 전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또 혼잣말로 무심코 중얼거린 것입니다만 하여튼 저의 부덕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거듭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이번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오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이러한 결의안 채택에 대비해서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결의안 초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임 위원님.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1쪽에서 보면 '특히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금번 핵실험 등 북한의 일련의 핵보유 시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한 1992년 1월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2006년 7월 15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695호'하고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695호는 교환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695호는 그 앞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695호 및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2006년 10월 14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718호' 이렇게 나가는 게 문맥상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진 예, 지금 정옥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695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그 문구를 1695호 다음으로 집어넣어서 바로 1718호로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 위원 결의안 내용보다도 전번 미사일, 사실 로켓 발사 때도 우리가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도 그날 한 8시간을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다, 놓쳤습니다.

이번에 결의안이 일단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위원장님께서 여야 3당 간의 간사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채택하셨다는데 3당 간의 간사가 없는 비교섭단체로 저도 분명히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송영선 위원이 낸 결의안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예, 송영선 위원님께서 규탄 결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야 간사들이 송영선 위원님 결의안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오늘 결의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정옥임 위원님.

○鄭玉任 委員 간단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다가 더해서 1쪽에 보면 '2009년 4월 13일의 의장 성명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라

해야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초안에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아직 수정되기 전의 것으로 하신 모양입니다.

또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옥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동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다른 분이 발언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지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들고 한민족의 평화질서를 결정적으로 후퇴시키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 합의를 정면으로 깨트리고 또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켜서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정부가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항에 보면 국제공조는 강조돼 있습니다만 정부가 해야 할 바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고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한데 정부는 북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지렛대도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그림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비정상입니다. 일체 대화가 단절돼 있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조에 대한 강조, 그리고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예,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3페이지 4항에 보시면 정부의 대응을 긴밀히 감시·감독하고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며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정상화,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은 3항에 그것을 넣자는 것이지요?

○정동영 위원 제가 가진 3항에는 그게 없는데요.

○위원장 박진 아, 초안에 없습니까?

○문국현 위원 4항에다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위원장 박진 예, 이것을 저희가 4항에 집어넣은 것은 정부를 포함해서 국회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이 반영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동영 위원 제 얘기는 4항은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을 얘기하고 있고 3항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주문하는 것인데 국회와 정부의 독립적인 역할을 감안하면 3항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은 그대로 놔두고 3항에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함께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체제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 3항, 4항에 같이 반영을 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북관계 정상화는 3항, 4항에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결의안의 오·탈자 등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각 소관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

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현안보고(북한 핵실험 관련)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0시55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동 핵실험과 관련된 과학적 데이터 등 추가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 합의 의무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어제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과 대응책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일 정상 간의 전화 협의가 있었으며 저는 하노이 ASEM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현지에서 나카소네 일본 외상, 양제쯔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그리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 등을 가졌습니다. 상기 일련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함께 단합되고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 아침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을 다시 점검하였으며 특히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와 또한 관련국들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갖고 금번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고 단호한 안보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오늘 오후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안보리 조치 등과 관련한 러시아 측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시간 5월 25일 4시 반, 한국 시간 금일 새벽 5시 반에 개최된 긴급 비공식 협의를 갖고 북한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의 조치는 안보리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한 한편 북한에 대해 관련 안보리결의와 성명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안보리의 추가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즉각 개시키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안보리 의장이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유엔 및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를 저지하고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어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즉 한·미·일·중·러 5자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조율된 대응을 유도해 냄으로써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의 현재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핵문제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유용한 협상의 틀이라는 5자의 일치된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상황과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외교통상부장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5월 25일 11시 59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2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상청은 5월 25일 9시 54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4의 인공지진 감지를 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4월 14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핵 억제력 강화를, 그리고 4월 29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핵실험 및 ICBM 발사 시험 등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5월 19일 노동신문에서는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5월 25일 11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책을 검토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일부는 비상상황체제를 가동하는 등 북한 핵실험 상황에 따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11시에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황파악 및 체류인원 안전 등 관련 제반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또 북한 핵실험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파악 및 전파, 남북교류협력 및 개성공단 상황관리, 유관부처 협조·대응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방북·체류 인원의 안전조치 강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방북은 당분간 유보하였으며 개성공단은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5월 26일 현재 개성공단은 869명, 금강산 85명, 평양에 10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자재 등 시급하지 않은 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출을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약품 및 분유 등 인도적 생필품은 반출을 허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조치와 조율·협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새로이 임명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창석 정세분석국장입니다.

김남식 교류협력국장입니다.

최보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입니다.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홍재형 통일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두 기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장관을 지정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이 끝나면 마무리하실 시간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첫날 이렇게 발언하게 돼서 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금방 들어오는, 위원회에 들어오는 시간에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발표를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오늘 당연히 외교장관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도리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전에 PSI 참여 발표에 대한 정부 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질의시간에 PSI 관련된 내용이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께서 PSI 관련돼서 오늘 말씀하지 못한 내용, 미처 말씀 못 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PSI 참여 문제는 그간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을 뿐만 아니고 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시피 PSI 참여 원칙은 결정한 바가 있고 다만 원칙을 승인하는 그런 시점에 관해서는 주위의 상황을 보아 가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원칙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그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재개한 것은 그만큼 위험 무기 확산의 위협이 증가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정부로서도 이제는 확산방지구상의 원칙을 승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고 다만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는 이미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그렇게 하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러한 방침을 다시 한번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남경필 위원님.

○남경필 위원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됐고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회의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한 결정은 어제 또 오늘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해서 방침을 결정했고 그것은 여당 또 야당 간부에게 사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저……

○위원장 박진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까?

박상천 위원님.

○남경필 위원 제 질문이 아직, 질문을 좀 마치고……

○박상돈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남경필 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발표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참여 발표 문제는 장관께서 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공식적인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국민들의,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후에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가 결정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질의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정부 측에서 자세하고 성의 있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 박상천 위원님.

○박상천 위원 PSI 가입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보고 때도 누락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니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는데 PSI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의논을 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미리 이거 발표부터 해 놓고 여야 대표들은 나중에 와서 들어봐라, 이것 좀 국회와 정당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여기서 밝히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SI 참여 방침은 이미 지난번에 결정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렸고 다만 가입 시기만을 이번에 결정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1시 반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점을 논의를 했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다시 회의를 거쳐서 그런 방침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통보만으로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면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그다음에 정옥임 위원님.

○이미경 위원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되는데 PSI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은 반대해 온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반대해 왔고, 뭐 '상황이 변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야 영수회담을, 대표회담을 하겠다 해서 각 당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여기 회의에 오기 직전까지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님 직접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누가 민주당 대표에게 연락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회담을 하기로 했다 하면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대표회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특히 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시점에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결정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표회담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또 거짓으로 연락했다라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여야 간에 신뢰가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고 또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회의 직후에 역할을 분담해서 정당에 통보하는 것은 정무수석이 담당해서 하기로 그렇게 업무 분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전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특히 PSI 문제는 이미 지난 정부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를 해 온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적용이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새롭게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원칙을 승인한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이런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성숙한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 정옥임 위원님.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이 PSI라는 게 국가 간의 협정은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닙니다.

○鄭玉任 委員 이게 활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PSI의 주요 참여국 중에 러시아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중국은 아직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정식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 국무부에 가입 의사를 밝히는 레터를 보내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가입의사라기보다는 그런 비확산의 노력,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한다, 또 그 원칙을 승인한다, 영어로 엔도스(endorse)한다는 그런 레터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 레터를 보내신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오늘 날짜로 보내도록 워싱턴에 지시를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 레터의 내용 속에 남북해운합의서와 국제협정을 준수한다라는 전제 조항을 다셨습니까, 그냥 보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그런 의미가 없고 남북기본합의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면적인 가입을 했다고 그래도 어떤 의무가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재량으로 참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물적인 지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제한해서 편지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PSI라는 것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협정은 아니지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鄭玉任 委員 활동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라는 그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PSI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또 이것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PSI……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측 통보에도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한다는 점을 포함시켜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포함시키신 거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가 어느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지금 2006년의 핵실험, 또 이번에 핵실험, 또 얼마 전에 장거리 로켓 발사, 이것은 우리의 PSI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일련의 북한의 도발행동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지난번에 PSI의 참가를 결정하면서 당시에 몇 차례 지연이 됐었던 것이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중에 한 가지가 죽은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생일 기념이기 때문에 4월 15일을 또 피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나 신문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鄭玉任 委員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지요.

○위원장 박진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북한 핵실험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애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장관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PSI 문제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상임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미리 발표한 것은 선후가 바뀐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에 통보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위원장 박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기왕 PSI 문제가 나왔으니까 PSI 문제 실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정부가 PSI 참여 발표를 지금 했는데 이게 북한이,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저지하는 데 무슨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SI를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미 94개국이 가입한 하나의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확산의 위협이 증가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위원 장관님, 그것은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어저께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가 있은 직후에 오늘 발표를 한 그 시점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발표를 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보면 북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도발행위를 한 데 대한 징벌성 내지 또는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하나의 반응으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PSI 참여와 관련해서 중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중국에 사전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사전 통보한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한미일 공조하고 중·러 등 주요 나라들과, 5자가 합의를 잘 해 가지고 북한을 6자회담에 끌고 가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중국하고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이야기를 해 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도 PSI에 제일 많이 관련…… PSI에서 북한과 제일 많이 관련된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지역적

으로 그런 거지요. 그러면 중국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가 있게 해야지 그냥 북한이 발사를 했으니까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점을 정부가 좀 유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북한에 대해서 많은 압박, 제재를 가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것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중국도 어저께 북한 핵실험 이후에 나온 것이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고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반응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과, 중국과도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대북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해 가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을 통해서 또는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보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PSI 관련해서는 그 정도 해 놓고요.

외교부장관님, 지금 단순한 핵폭발 장치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송민순 위원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조그만 방에서 수류탄 들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자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책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핵무기를 못 가지도록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향후조치 계획' 하는 것 보니까 한미일 공조해서 유엔안보리 결의, 안보리 결의해서 북한에 제재를 한다 해서 지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제재 다 받고……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북한과 중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흑자를 얼마나 본지 아십니까? 13억 불이에요, 13억 불. 그게 사실 외상인데 그 외상이란 말은 따지고 보면 원조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억 불씩 원조를 주고 있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의 통과의례 비슷하게 대북 제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외교부에서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통과의례식 행사보다도 정부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추가도발 못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핵화 협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대책을 여기다가 써 놓으셨는데 북한의 1차 핵실험도 말씀이지요, 바로 방코델타아시아 그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핵실험도 북한이 6자회담 2단계 핵불능화 단계에서 이것이 파행되면서 그러한 제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어한다는 말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어떤 기록이 있는 것인지 잘 보고 해야지 그것 없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자꾸 뉴클리어 디바이스(nuclear device)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디바이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 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은 아주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말이지요, 좀 근본적인 대책에 접근하는 것이 나는 외교부가 취해야 될 맞는 조치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님, PSI 참여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님은 찬성하셨어요? 예스, 노만 말씀해 주세요.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찬성했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면 통일부장관님은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물꼬를 터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결정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입니까? 현 장관께서 계실 동안 남북대화는 아예 포기하신 건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

어서 PSI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한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런 것을 해서는 앞으로 북한이 더 핵개발을 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것을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외교부장관님,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해서 결국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이 3자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우리의 주소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점에 우려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미국과 북한 또 중국과 북한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미국은 한미 간의 공조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또 필요시 한미일 간의 공조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국, 중국, 일본 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격지심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항상 거기에 착안은 해야 되겠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PSI가 실효성 있는 장치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위험무기를 북한에서부터, 북한이 도입을 하고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PSI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비확산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거듭된 위험무기 개발을 제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외교통상부장관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PSI에 대해서 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지난 3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미 정부 출범부터 PS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3월에 PSI를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동참하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큰 의지에서 방침을 결정했었던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예민한 반응 때문에 주저했던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94개 국가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시간을 좀 가진 것은 국내적인 여론수렴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PSI의 본질을 좀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관계국하고 협의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고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개성공단의 상황, 사건 등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현실적으로 우리가 PSI에 참가를 하든 참가를 하지 않든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오는 북한의 그런 도발행위가 PSI에 연동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실험을 했고 이미 북한이 우리가 PSI 참가하기 훨씬 전부터 경고했듯이 핵실험하고 나서 ICBM 발사하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중한 안보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PSI 참가와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내부를 보면 주가는 선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침착하게 대응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핵폭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가늠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鄭玉任 委員 예,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여러 관측소, 특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에서 관측한 것과 우리 관측소에서 관측한 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리히터로 4.53 수준이고 이것은 과거 2006년 10월에 리히터계 4.1에 비해서……

○鄭玉任 委員 장관께서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에 똑같은 위력의 폭탄이 수도권에 떨어졌다 그랬을 때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상식과 통념에 입각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나가사키나 히로시마보다는 서너 배 더 위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희생자가 어찌했는지는 너무나 끔찍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올 6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아젠다에서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맞는 엄중한 안보환경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제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로 예정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이로 인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의 고조 또 장기적인 전략 문제 등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유엔안보리와 관련해 가지고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고, 우리는 이사국은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사국은 아니지만 P5+2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투'의 자격으로 유엔대표부에서 수시로, 항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보면 다양한 비군사적 제재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재위원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제재위원회가 완전히 가동되는 상태였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지난번에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기로 제재위원회가 회합을 갖고 4월 25일 제재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 소위 3개 북한의 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제재위원회가 다시 소집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밖에 추가적인 제재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결국은 그 3개 북한 회사도 지금 제재를 완전히 가동한 것은 아니고 부분 가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입니까? 소위 2007년의 합의에 따라서 그동안 불능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능화 과정에서 결국은 북한이 검증을 거부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실험으로 이어졌는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불능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존의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실험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2007년 이후의 불능화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남아 있는 플루토늄을 쓰고 나서 불능화 과정에서 그 불능화된, 어떤 핵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남아 있는 플루토늄을 다 쓴다는 전제를 한다면 향후에 북한의 핵개발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능화라는 그리고 6자회담이라는 그러한 포장 속에 계속해서 북한은 핵계획을 지속해 왔던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불능화는 해체의 전단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불능화의 의의는 일단 불능화를 하게 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북한의 추가적인 플루토늄 생산을, 그 정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6자회담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6자회담이 과연 다시 재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궁극적인 핵 폐기 그리고 핵활동을 용인하지 않는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중국과 함께 우리가 3자회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한 가지 이렇게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 보면 실제로 당사국인 우리를 제외한 채 중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3자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에 대한 질의는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중일 간 3자회담의

가능성은 저는 항상 있다고 봅니다.

다만 3자회담의 목적은 한반도의 어떤 정세를 논의하는 장이 아니고 그외의 경제, 환경, 에너지 이런 범세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신낙균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들 하시는 PSI 전면 참여에 대해서 먼저 짚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10시를 기해서 공식으로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저희들이 듣기에는 언론에게 이미 자료를 주고 엠바고로 10시까지로 묶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언론 엠바고는 사전에, 이미 과거부터 자료를 다 배포했기 때문에……

○신낙균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민주당은 PSI 전면 참여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그런 이유로 계속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핵 실험으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매우 엄중한 상황이 됐는데,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시에 이 상임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국회를 경시하지 않았다면 10시에 이렇게 공식화하기 전에 정해진 상임위원회와의 합의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국회 존중이지 않겠습니까? 이 이상 어떻게 더 국회를 경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현 정부의 국회 경시상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점에서 매우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핵실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북한의 단행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충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1차 때는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예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북 정보력, 대응능력 이런 것에 정말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언제 인지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대책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은 지난 4월 29일 핵실험을 하겠다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 핵실험 가능성이 물론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어제 정확한 그 시간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지하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한 동향파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핵실험을 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인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신낙균 위원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도, 다른 데도 알려줬다고 하는 것이 당사국에서 그렇게 크게 내세울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이 예측과 준비도 없이 어떤 면에서 매우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 같이 보여져서 안타까운데요, 이번 2차 북 핵실험을 보면서 과연 냉전적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대북 정보분석능력 또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한계와 무지를 이번에 보여준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질의는 지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에 통보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의 구도로 전개하려는 그러한 뜻이 실린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는데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시중에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핵능력이 자꾸 높아지는데 우리는 계속 방관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진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전에 핵능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오히려 말려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소극적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은 지금까지 핵능력 개발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네 입장을 변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우라늄농축기술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해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북한 핵 문제를 과연 우리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생각해 왔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여러 가지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더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지금까지의 대북 태도가 소극적이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에서 썼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남북대화를 새 정부 들어와서 차단하고 거부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북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로서는 작년에 식량지원도 제의를 했고 또한 6·15, 10·4 선언에 대해서도 그 정신을 존중해서 이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북 대화를 제의했습니다마는 계속 대화를 거부한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낙균 위원 그것이 한결같이 우리 정부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북한에 대한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 주지 못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계속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대처나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라는 그런 지적이지요.

여하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송영선 위원 박선영 위원님이 질의할 순서인데 한 1분 정도 의사진행발언만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력과 양해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질의 순서에 대해서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은 3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 교섭단체 간에는 결석이 있을 경우에 합의에 의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행정부서의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 간에는 자기 식구가 결석일 때는 전체의 운영과 관계없이 질의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되풀이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교섭단체가 아닌 상임위원은, 여기 정동영 위원님 무소속이지요, 비교섭이지요. 순서를 바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민주적인 운영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칙을 확고히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같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질의 순서에 대해서 송영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의 질의 순서는 교섭단체 순서에 따라서 안배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순서를 바꿀 경우에는 교섭단체 내에서 순서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 행정실에서 질의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송영선 위원님 하신 내용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그것이 불균형이 없도록 앞으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질의에 앞서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누가 시계를 어디에다 버렸느냐 하는 이런 것은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고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했느냐,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9시 54분에 핵실험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11시 38분, 무려 2시간이나 가까이 지나서야 핵실험을 한 징후가 발견된다,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 30분에야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일본은 10시가 조금 넘어서 바로 인공지진 감지가 됐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 문제점을 위원님들과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통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진도가 몇이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들이 파악한 기록으로는, 우리 관측소는 최초 4.4 정도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CTBTO 국제기구와 협의한 결과 4.5가 더 정확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1차 핵실험 때는 3.5였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3.5에서 4.1 사이였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거의 1도 차이가 나는데 그 1도 차이가 나면 위력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늦게 한 이유가 뭔가요?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공지진은 여진이 없고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국민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외통부 소관은 아닐 테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월 5일 날 핵실험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사일……

○박선영 위원 그리고 4월 14일 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북한은 보름이나 있다가 협박을 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핵실험 2차 하고 미사일도 쏘겠다고 벌써 보름이나 있다가,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만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을 하고 나서 25일 만에 정확하게 실행해 옮겼습니다. 25일 동안 우리 정부는 뭘 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의 협박 이후에 특히 한미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외무성뿐만 아니고 정보 채널에서도 북한의 이런 협박이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또 매일 영상정보를 교류해 가면서……

○박선영 위원 예의주시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의주시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예의주시 외에 뭘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그러한 도발조치를 할 경우에 대해서 대책도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박선영 위원 대책,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제 북한이 2차 핵실험하고 미사일 세 차례 쐈습니다. 그 후에 정부가 성명이라도 발표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어제 강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강한 성명 외에 뭐가 있나요?

자, 국제 공조 한다 그러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는 말은, 오늘 아침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오로지 국제 공조 하나입니다. 국제 공조 잘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주변국, 특히 6자회담 참가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는데 공조는 잘 안 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요, 공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잘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차 핵실험 때 어디로부터 정보 받으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때는 북한이……

○박선영 위원 중국으로부터 받으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단답형으로 답변하십시오.

중국으로부터 받으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이번에 2차 핵실험하면서 북한이 어디 어디에 정보 줬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에 사전정보 줬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우리는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한 정보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 알아라' 하고 정보 받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 통보한 것이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실험을 하겠다……

○박선영 위원 못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못 받으셨지요? 단답식으로 얘기하세요. 7분 안에 이것……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못 받았어요. 못 받으셨지요? 중국으로부터도 못 받으셨고 미국으로부터도 못 받았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에 몇 분 전에 통보했는가를 아신 다음에……

○박선영 위원 몇 분 전에 통보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미처 우리에게 통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선영 위원 미처, 3초 전에 통보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나중에 보고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국제 공조 하겠다 그러는데 북한은 사전에, 물론 1차 때보다는, 1차 때 20분 전에 통보해 줬지요? 그때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혈맹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국은 1차 핵실험 때 우리에게 정보 줬습니다. 그러면 늦더라도, 그들이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전략적인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9시 54분에서 불과 1, 2분 늦었다 하더라도, 1, 2분 늦는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혈맹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입니다. 국제 공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성명 하나 발표했지요? 자, 브라질은 주북대사관 업무 개시를 늦췄습니다. 오늘요. 왜 그랬을까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제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강한 의사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긴박해서, 임박해서 정보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게 그들은 최소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나중에 성의 표시를 하려면 사후에라도 몇 초 전에 이런 게 왔다라고 정보를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국제 공조가 안 될까요?

자,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이나 또는 사전에 공유하지 못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아직도 북한 정보 공유를 주변국들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강력하게 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재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나오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답변……

○박선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먼저 다 질문하시면 시간 다 쓰신 다음에 추가로 말씀……

○박선영 위원 얼른 하세요. 답변 얼른 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답변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자, 어떤 제재가 나오든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효과도 없을 겁니다. 왜요? 북한은 이미 50년 동안 국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은 50년 동안, 북한이 만들어지고 나서 50년 동안 끊임없이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 제재 결과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핵실험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국들한테 해결해 주십시오하고 대북정책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답변을 간단히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강한 그런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미국이 우리한테 통보가 늦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30분 전에 뉴욕 실무 채널을 통해서 미 측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쪽 상부에 보고되는 시간에 우리가 지진계에서 관측했다는 것을 오히려 미국에 통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핵실험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미국에 통보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 공조를 받았습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에 통보한 내용이 언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요구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분석하고 뜻을 하는데 30분 가지고는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준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또 실제 실행해 온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들이 애통함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고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도, 제가 최근에 제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을 면회한다고 가 보니까 우리 군도 좀더 긴장감을 더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비상사태에 대한 것도 아주 완벽한 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아주 절대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 한반도에서 핵실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꼭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차제에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대의 화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민족의 통일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우리 민족이 번영하고 정말 자손 대대로 번영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그러한 통일이라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언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마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또 인류에 기여하는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두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해야 된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정의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남북이 공존 공영해야 된다 이런 대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화 위원 차제에 일종의 태스크 포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민간인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그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후계자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북한으로서는 정권,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도 그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보장까지를 포함한 것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님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핵 문제의 해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정부는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6자회담에서 합의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또 6자회담에 돌아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물론 우리가 주변 4대 강국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 문제는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점을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제가 깊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4대 강국의 도움은 받되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우리 문제를 우리가 바로 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저는 평소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외교 정책 내지는 대남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주도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화해·협력의 바탕 위에서 공생공영을 이루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말로는 남북한의 공생공영을 주장하면서 그 실천 방법으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또한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효과적인 진전이 없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기다렸던 전략이 무엇을 얻었는지,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안 했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고 미사일 발사를 안 했습니까?

또 PSI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PSI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로켓 발사나 핵무기 제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94개 국가가 대테러 방지 차원에서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의 환경과 여건을 파괴하거나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PSI 참여를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또 현재 외교부장관으로 계시는 유명환 장관조차도 전 정부에서 바로 이 국회에서 PSI 참여는 북한을 자극만 할 뿐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참여할 때가 아니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또 언론보도에 의하게 되면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는 PSI 참여가 북한을 자극할 뿐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는 통일부장관의 전적인 찬성하에서 정부 방침으로 PSI 참여를 결정을 했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발표 시기를 늦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는데 진정으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대책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정책에……

○박주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설명은 내가 다 압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상수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것이 유일한 상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해도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그 효과는 없다는 말씀인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이 대결주의가 아니고 평화주의이고 우리 선의의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통일부장관 또 정부의 견해이기 때문에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핵실험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냐,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북한에게 끌려다닌다 하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를 버리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전략을 펴야 되고, 그다음에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PSI 참여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얻는 소득이 뭔가요? 무엇 때문에 PSI에 우리가 참여를 합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 외통부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PSI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말하자면 레짐(regime)입니다. 그런 활동, WMD와……

○박주선 위원 아니,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얻는 효과가, 소득이 뭐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PSI에 참여하게 되면.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남북합의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거의 100여 개에 가까운 국가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PSI 가입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핵무기 실험을,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국제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박주선 위원 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보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PSI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로켓 발사를 하고 어제 핵실험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북한과의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화 위주로 해야 된다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PSI 참여를 전면전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정말 중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법과 관련해서도 북한을 자극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진실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북한의 기분을 맞춘다는 측면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 환경에, 대화의 여건에 호응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대화의 기본자세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PSI 가입은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북한이 핵실험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참을 대로 참아봤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천하에 공포를 한 것이 PSI 참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적어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력 사용 외에는 단호한 조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는 통일부장관마저도 정부에서 흔들리고 분위기에 휩

싸여 가지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고 즉흥적이고 단견적인 견해에 동조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통일부장관에게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PSI에 참여를 해 가지고 북한이 아무런 호응도 하지 않고, 호응할 수도 없습니다. 호응도 절대 안 할 것입니다. PSI 참여를 해 가지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북한만 자극하게 되면 결국 대화를 위해서…… 남북 관계의 훼손을, 불장난하고 있는 북한에게 불을 끄도록 진화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불을 놓는 격이 되어 가지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남북 관계의 단절 내지는 손상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박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그간에 전면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문을 활짝 열어 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한나라당의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정진석입니다.

아까 외교부 장관께서 질의 답변 도중에 PSI 가입 방침과 관련하여 오전에 각 정당 대표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각 정당 대표들에게는 그 사실을 미리 통보를 하셨는데 국회의 유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회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말이지요. 이러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칫 정부가 국회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비추어질 수 있고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사실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했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안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대응 태세는 원만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만족해하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핵실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외교부장관께서는 미국과의 정보 공조가 작동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감행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한 징후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국가의 안보시스템에, 동맹국과의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2006년도 제1차 북핵 실험할 때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핵실험 20분 전에 통보를 했고 중국은 자국 내에 있는 한국·미국·일본 대사관에 이 사실을 20분 경과 내에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경우에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 핵실험 사실을 통보한 것이 15분 전이었습니까, 한 10분 전쯤 됩니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정보 공유할 시간이 없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북한이 제2차 북핵 실험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우리가 면밀한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위 문제를 최초로 기상청에 의존해야 됩니까?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음, 제가 볼 때 북한의 북핵 카드는 더 이상 카드가 아닙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완료하고 싶은 것입니다. 핵무장을 완료한다는 그러한 북한의 계획이 노골화됐다면 제1차 북핵 위기 때도, 제1차 핵실험 할 때도 우리는 대화정책을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2차, 3차 북 핵실험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 차례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진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 핵실험의 정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징후는 물론 꾸준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정확한 시점은,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바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감지를 했다는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점에 관해

서는 우리 외교통상부장관님께서 미국과 중국에 관해서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북핵 카드가 카드가 아니고 그것이 핵 무장을 완료하고 싶은 것이 아니냐 하는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북정책도 사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 시점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대북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취지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도 저희들은, 물론 핵실험이 엄중하다는 점은 기존에 충분히 정부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겠다고 한 이후에 우리 한미 양국은 미 측과 영상자료를 매일매일 교환함으로써 길주군 풍계리, 1차 핵실험을 한 장소에서 활동징후를 포착해서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하 핵실험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봄으로써 그것을 언제 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이……

○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찍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석 위원 제가 그 답변은 그렇게 듣겠어요.

외교부장관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자기네 핵 보유의 명분은 자위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아래서 자위적 억제력이 필요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한 북핵 억제력의 확보를 위해서 3년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인식인데, 다음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는 그 자체 합의에 따라서 매년 안보상황을 리뷰, 즉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은 이런 정기적인 안보상황 리뷰 시에 적절히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어쨌든 다음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공약은 최소한도 재확인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안보공약을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짐을 했고, 또한 한국에 핵우산 제공, 익스텐디드 디터런스(extended deterrence)는 계속 제공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공개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듯이 이 문제는 계속 한미 양국 간에 확고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저희가 12시 반에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전 발언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정동영 위원님께서 오전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의 동의에 의해서, 또 비교섭단체 우리 송영선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송영선 위원 동의가 아니고 양해입니다.

○위원장 박진 양해입니까?

진영 위원이 하실 차례인데 지금 진영 위원이 안 계시고 또 우리 송영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우리 정동영 위원님께는 상임위 출석 첫날 페이버(favor)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고맙습니다.

점심 정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써서 송구스럽습니다.

짧게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성격이 변한 것 같습니

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협력시대로부터 안보시대로 전환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인택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여전히 협력시대입니까, 아니면 안보시대로 바뀌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말이 갖는 그……

○정동영 위원 그러면 즉답을 못하시겠군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정동영 위원 다음에 화해시대로부터 대결시대로 전환, 이런 본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다 좀……

목표가 협력시대로부터 안보시대로, 화해시대로부터 대결시대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다시 협력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과……

○정동영 위원 아니,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역시 목표입니다. 협력시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협력시대와 화해시대는 목표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지난 2년 전,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시절의 평화지수, 경제지수, 전쟁지수를 비교해 보면 2009년 5월 26일 현재 평화지수는 현저히 낮아졌고 전쟁위험지수는 현저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통계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유 장관께서 평가하시기에 한반도의 위험이 올라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북한의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에 의해서 긴장이 조성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평화 분위기는 많이 후퇴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동영 위원 자, 이제 PSI 참여를 북에서는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됐는데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 후속대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고에서 해운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북이 이것을 일방 파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동영 위원 파기할 가능성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북한이 전쟁한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정동영 위원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서해상에서의 충돌 가능성 이것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충돌에 의한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 PSI를 북은 적대시 정책의 최고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PSI는 대북 적대시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어떤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문제를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SI의 원래 취지에 대해서 북한이 이것을 왜곡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PSI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PSI가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현실은 북이 이것을 적대시, 즉 선전포고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에 나설 텐데, 그러면 북이 대응에 나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 정도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뭘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WMD, 소위 통제품목, 위험물질을 수출입할 의도가 없다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하등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동영 위원 예.

현인택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PSI 참여는 현 정부 내에 남북관계의 전면 파탄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다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 남북관계는 다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동영 위원 PSI 전면 참여에 대한 대응으로 해운합의서의 파기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단계적 폐쇄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상황 조치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대비를 합니다.

○정동영 위원 항상 대비하고 계시면 가령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잠정적 폐쇄 조치 수순을 밟을 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포기가 정책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개성공단 포기가 방침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포기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에 대한 그런 위해 조치가 취해질 때 대응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도래했잖아요. 내일 모레 금방 전개될 텐데 국회에 그런 정도의 설명은 할 수 있어야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상황은 우리가 예단을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에 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때 설명할 내용을 좀 미리 얘기해 주실 수는 없어요? 어떤 대책이 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상황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유 장관님, 이번에 핵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내부 변수 그리고 미국 변수 외에 남북관계가 변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남북관계는 변수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남북관계나 한국 국민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하는 데 있어서, 감행하는 데 있어서 변수조차 안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핵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동영 위원 우리의 문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우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黃震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유명환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노력

했던 게 6자회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6자회담 이외에 달리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특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모두 6자회담의 유용성을 아직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구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계속 이러고 있고 하니까 6자회담만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너무 6자회담만 생각하면 북한이 참석을 안 하고 있으니 좀 갑갑한 심정인데요. 그동안에 6자회담 죽 진행되는 것도 한번 검토와 반성을 해야 되고요. 다시 6자회담이 시작되건 또 한동안 시작이 안 되건 간에 그에 대한 다른 대책도 좀 마련해서 국민에게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규탄 결의문에도 나와 있는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거 언제까지 정말 금과옥조같이 가져가야 됩니까,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해서? 이거 다들 '휴지 다 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을 택해서 우리도 정말 다른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건지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걱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목표인 것은 현재로서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비핵화를 포기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거 한쪽은 완전히 휴지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점이 있지요.

○진영 위원 우리가 계속 이거 금과옥조같이 가지고 가는 게 대한민국으로서의 체면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우리만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원칙 하나가 핵 문제와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햇볕정책이 잘못돼서 북한이 핵실험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못해서 북한이 핵실험 한 것도 아니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북한이 이번에 2차 핵실험 한 걸로 봐도, 시일이나 이런 걸 봐도 자기들이 정한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걸 더 나타내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우리는 우리 길 간단 말이지.

그러면 대한민국도 확실한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떻게 하건 간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강경책으로 가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핵 문제와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이명박정부도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핵 개방 3000으로 해서 비핵이 진행되는 전제하에 남북 문제는 간다 이런 원칙이었던 것 아닌가요, 지금?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그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핵 문제와는 좀 달리 남북 문제를 별도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본질적인 문제로서 같이 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를 완전히 떼어놓고서 남북 문제로 갈 수가 없고 또 핵 문제로 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남북 문제를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자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핵 문제는 별도로 비핵화를 처리하고 남북 문제는 그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별도로 진행을 한다 이런 게 김대중 정부 때 죽 진행해 왔던 거고, 노무현 정부는 약간 연계했다 안 했다 하면서도 결국은 좀 분리해 놓고 진행을 했던 거고, 이명박 정부는 약간 연계를 시켜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또 제가 중간에 느끼기에는 그래도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놓고 남북 문제를 별도로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또 PSI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또 연계를 시켜서 남북 문제가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원칙을 세워서 나름대로 한쪽이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말이지요. 좀 나가야 되는데 이랬다저랬다 하면 이건 사실 끌려가는 모양도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현 장관님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 찬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핵 문제도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속하고요. 또 남북 문제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화시키면서 같이 풀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지혜를 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풀어나가는 것은 같이 풀어나가는데 그와는 별도로 남북 문제의 돌파구를 좀 열어야 된다 이런 게 국민들의 소망 아닌가요, 지금?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은 또 큰 틀에서 생각해 놓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2차 핵실험까지 해서 이제 상황이 잘못하면 한동안 이명박 정부 때 남북 문제는 거의 물 건너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어떤…… 이건 불행한 사태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점도 정부는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하여간 현 장관님 소신껏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니까 지하 핵실험이니까 언제 핵실험 할지를 몰랐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 그건……

○송영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썼거든요. 외통부도 사실 같은 입장입니다. 심지어 국방부도 똑같은 답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방부 존재 명분 없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논의할 필요 없지만 국정원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북 정보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지금 정부에서 대답하느냐, "지난번은 북한이 미리 예고를 해 줬기 때문에 예의 주시했다"…… 그러면 북한이 친절하게 경고 안 해 주면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사실 몰랐고요. 이 자리에 국방부가 없으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수평 지하 핵실험 같으면 땅 파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구글 사이트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것 KH-11이라는 군사위성을 통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 137m, 또 지상에서 1.37㎞……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트럭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여요.

북한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핵실험 다시 하겠다, 미사일 다시 쏘겠다…… 지금쯤은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몇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제넘은지 몰라도 저는 정말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이 아니고 이 시점에요. 토요일 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것을 이용하겠구나'…… 왜? 북한이 왜 핵실험 했습니까?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너무 잘 아시지요?

첫 번째 오바마를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지만 가장 큰 것은 타이밍이 절묘하다, 남남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

국민 여론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처도 이것을 대처를 못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 핵실험이니까 언제 핵실험할지 몰랐다, NPT가 인정하는 전 세계 핵보유국 5개국 중에서 비키니섬을 제외하고 지상 핵실험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지하 핵실험, 수중 핵실험을 통해서 핵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 되기 위해서 지하 핵실험 계속해도 지하 핵

실험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두 장관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정말로 북한 핵 문제는 우리 민족 생존의 그리고 한반도 안보의 엄중한 사실이고 위협이라고 얘기했으면 말씀처럼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부처도, 국방부·국정원까지 합쳐도 엄중하게 대처하는 부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사후약방문이에요. 너무 심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북쪽이 어제 12시 조금 지나서 오후 5시 넘어서 KN-02 120㎞짜리 미사일 발사를 세 번 실험했습니다.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120㎞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압니까? 북한 최고의 정예 기갑부대가 해주에 있습니다. 해주에서 서울까지가 120㎞입니다.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6월 달 꽃게잡이 때 써먹으려고 지금 테스트한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올해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김정일이 지금 너무 조급하니까, 건강도 안 좋고 후계체제도 빨리 확고히 해야 되니까 안팎으로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미친 사람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잠을 자고 있어요, 미친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젠틀맨스 룰(Gentleman's rule)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엄중하다, 신중하게…… 아닙니다. 계속 되풀이됩니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이 상임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하 핵실험이니까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4700만 국민한테 정부를 고발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부처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PS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오전에 답변하실 때 PSI가 분명히 북쪽에 있어서 우리를 적대시 정책으로 유도해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적대시 정책으로 유도해 간 것이지 PSI가 만능도 아니고 PSI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핵 수출, 미사일 수출, 핵물질 수출 100% 다 막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입니다. 국제사회에 공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공조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기본입니다.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송영선 위원 그렇다면 4월 14일 유엔 1718호 결의안에 대한 제재조치가 나왔지요? 4월 14일 결의안 제재조치가 나온 5분 후에 왜 우리 PSI 참여한다고 안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송영선 위원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4월 15일부터 북한에 끌려 다녀요. 16일 날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19일 날 만나자, 만나고 난 뒤 그 다음부터 우리 이때까지 코 꿰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왜 이렇습니까? 핵실험한 즉시 PSI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PSI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벌이고 북한이 PSI라는 카드를 우리에게 역으로 써먹지 않도록, 과대포장해서 써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있을 유엔 제재 논의할 때, 결의될 때에 동시에 던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가입하기로 원칙을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지난번에 가입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면 4월 15일 날 북한이 어떻게 나와도 들어갔어야지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밍을. 북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이것은 군사 행동보다는 국제사회의 외교 행동입니다—이것을 가지고 최대의 무기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던져준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PSI는 분명히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결정은 저는 아주 서투른 결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가입한다는 뜻을 전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재고할 룸이 있다면 유엔 제재 결의 때 함께 하는 것이 어떠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원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이것을 남남갈등에 자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원

칙을 결정해서 한다는 것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의미는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 정부의 PSI 참여 선언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자위적 핵 능력 보유도 제기되는 등 매우 앞서가는 위험한 발상들이 거론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동시에 대북제재와 함께 급격한 대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사회 공조에 대해서 지난 4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중국·러시아와 이견이 비춰지는 것처럼 보도가 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두 나라 다 대북제재에 충분히 동참할 것으로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후에 내놓은 성명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의 기대 이상으로 강력한 내용이었고, 또 러시아도 그와 같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중국은 북핵 문제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원유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식량 원조를 중단한다든지 혹은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냈는데 유엔 제재와 별도로 중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중국 나름대로의 그런 외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번 북 핵실험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시 미국의 관심 끌기와 북·미대화 이전에 몸값 올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의 희망대로 미국이 북한 문제의 정책순위를 높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전략으로 지속해 온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보스워스 특별대표가 왔을 때도 미국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또 미국은 북한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지는 않을……

○홍정욱 위원 그러면 당분간 무시나 방관전략,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다만 그러한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여기자 2명의 억류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미·북 접촉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미국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게 보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혹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특사에 비해서 대북특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한계 이런 문제점들이 자주 제기되곤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지금 미국의 그런 것을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전술적인 하나의 대화의 기술적인 측면의 성격으로 우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방침은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정욱 위원 오늘 여러 분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는 특히 정부에 네 가지 정도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때처럼 국가 간의 이견으로 공조가 완벽치 않은 모습을 피하시고 이번만큼은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중국이 사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원조와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상 어떤 봉쇄나 제재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고, 지난해 남북경색이 된 와중에서도 대중 교역이 급증했고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요.

셋째로는 미국의 정책순위에서 저는 북한의 비중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연한 대처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달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특사의 역할과 지위를 재정립하고 양국이 어떤 대북 대응의 가닥을 잡는 일이 참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분간 경색국면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2006년도에도 핵실험 이후 한 달 만에 6자회담 개최가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내달 미국 여기자들 재판을 앞두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대화국면 전환 이전에 미국과 아주 빈틈없는 정책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별도로 여쭤 보겠습니다.

PSI 참여와 관련해서 아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 외교부 당국자가 지나친 걱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북한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무력충돌 가능성 혹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요, 그것은 지금 이것을 사실 이상으로 북한이 어떤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PSI에 대한 반응을 상당히 너무 과격하게, 무슨 전쟁선포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 억지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장관님, 그러나 분명히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서해안에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오늘 오전에 국정원은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까지 언급했거든요. 북한이 이제까지 구두로 위협해 온 것들은 거의 100% 실행에 옮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분명히 우리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이 지나친 걱정이라는 것은 저는 좀 안이한 판단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PSI를 과장 확대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홍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제가 들었고요.

물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추가 도발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도 핵 보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군이 전술핵을 남한 내에서 모두 철수했기 때문에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없습니다.

○홍정욱 위원 남한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돌릴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정욱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양국 정상 간에 미국의 핵우산 보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핵 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남한 내 재배치 이런 것은 동북아 군비경쟁, 일본의 핵무장 등을 촉발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기초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미국 측이 우리에게 30분 전에 통보해 주었다는데 미국 측 관계자하고 얘기한 바에 따르면 약 1시간 전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전화로 미국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30분이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9시경이라고 그랬는데……

○홍정욱 위원 정확하지는 않으시지요? 제 정보에 의하면 1시간 전에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1시간이면 우리 측에 통보하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통보가 언제 실험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엔안보리가 사죄를 안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은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에서 상부로 보고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정욱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홍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북한의 핵실험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도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제재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전직 국가원수의 상중에 이러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인륜적으로나 정치적 도의로 보나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 정부도 참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땅한 제재 수단들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도 사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책, 아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핵실험은 시점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예측되었던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예측 속에서도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특히 통일부장관께서 유연하게 대북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핵실험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들은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예측된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의 유지 문제 등을 이미 방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와는 별도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또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조의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는 물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조의를 표하자마자, 특히 핵실험 4시간 전에 조전을 보내 놓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조문단을 보낸다고 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장의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의위원회는 정부 측 대표하고 유족 측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정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협력, 특히 유엔안보리 제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아마 중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의 입장,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어제 양제츠 외교부장하고 하노이에서 양자 회담을 통해서 우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위반이고 한반도 지역의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유엔에서 긴밀히 양국 간에 협조를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남경필 위원 중국의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PSI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동안 PSI 참여는 신중하게 유보하자는, 그러면서 남북 동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서 PSI 참여를 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론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있다, 하나는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 당사국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PSI 참여와 관련해서 미국과는 상의를 한 것 같은데 물론 미국이 주도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 특히 중국과의 대화, 사전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중국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PSI에 가입을 안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PSI 국가 간에 많이 협의를 해서 국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나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더라도 참여 시기에 이것을 상의하는 것과 상의하지 않는 것은, 항상 모든 정치행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 들으니까 어제 각 정당에 통보하는 것은 정무수석이 하기로 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결정 과정에 정무수석이 참여를 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남경필 위원 좀 아쉬웠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국론분열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PSI 참여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찬반이 상당히 첨예하게 엇갈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 참여를 할 방침이었다면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며칠이 늦어지나 큰 차이가 없다면 이것을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가 된 이후에 이것을 발표하는 모양이 되었다면 훨씬 국민의 동의, 국론분열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경필 위원 그런 쪽의 논의는 없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많은 기회에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이미 방침이 결정된 것이 3월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더 우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런 논의가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공개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논의가 안 되었다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신 4자회담에 대한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미 우리가 4자회담은 96년부터 했기 때문에……

○남경필 위원 신 4자회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PSI 참여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서해안에서 도발 조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답변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PSI하고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천 위원 없다고 보는 근거는 지금 애도 분위기에서 그런 조치를 북한이 했을 때 북한에 피해가 갈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아니, 북한에 피해가 갈 걸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박상천 위원 우리 국민들의 대북감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천 위원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안 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런 것 같은데, 애도 기간 중의 대북감정 악화를 배려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2차 핵실험하고 마사일 발사하고 한 것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것이 진의인지 아니면 협상용인지,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협상카드로도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천 위원 그것은 북이 어떤 경우에든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것이 진실한 의사인지 아니면 협상용이다, 남남갈등이다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은 요컨대 핵을 안 가져도 좋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핵보유국이 되려는 욕망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렇다면 이제 핵의 소형화, 경량화만 완성이 되면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결과로 보면. 그런데 핵의 소형화, 경량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한 산업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래서요,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의사라면 북한핵 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핵보유국이 되려는 사람한테 협상하는 것은 오히려 그 기간만 벌어주는 것이지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양자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북·미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되더라도 협상하는 동안에 북한의 핵의 경량화, 소형화도 함께 진전된다는 말이지요. 그것 중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북·미 협상이 됐다 그래 가지고 북한이 협상용으로 핵을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서투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진전시킨다 말이에요, 협상하면서.

그래서요, 북·미 양자대화가 해결의 길이라고 단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길은 무엇이냐? 북한이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가 우리 목표라면 남은 길은 유엔 제재 특히 중국의 제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북한이 핵을 못 가지게 하는 방법하고 나머지가 무력 사용인데, 무력 사용은 논외로 하고요 그 길밖에 없는데 이번에 장관께서 중국 외상 만났습니다마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중국은 항상 관계 각국이 이러한 때일수록 좀 시간을 두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마는 중국도 점점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중국이 식량과 석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을 강제로 못 갖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든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중국을 예의분석하시고,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분석한 그런 것 말고 심층분석을 해서 중국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면 그러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 이것 국력낭비이고 또 세계 전체가 도발세력에 대해서 소위 불량국가에 대해서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까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저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결국은 경제제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장성명을 통해서 직접 미사일 개발에……

○박상천 위원 경제 제재인데, 경제 제재를 중국이 참여를 안 하면 중국이 다 대버린다 말이에

요. 다른 데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봉쇄를 했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래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반적으로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엔에서 결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미사일을 수출하는 3개 회사들에 대해서 특정해서 금융거래를 다 저거했기 때문에 중국도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천 위원 구체적인 거래를 누가 지정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박상천 위원 러시아 태도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까, 지난번하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번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 반응은 매우 강경하고 유엔안보리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의사인지 아니면 협상용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우리도 근본적인 대처를 달리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어느 세월 동안 이러고 있겠어요?

그리고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는데 그것과 별도로 남북관계는 또 평화적으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핵문제를 떠나서. 북한이 우리 동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핵문제 해결과 남북문제 해결을 같이 바스켓에 놓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핵문제가, 북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보유국이 된다는 의사가 분명하고 핵문제가 되더라도 남북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통일부장관은 외교부장관하고 또 다른 중대한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정욱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북한이 주장한 대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실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핵실험과 관련해서요—협상의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교훈을 얻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PSI에 대해서 지난번 미사일 발사를 할 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때 PSI에 가입한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미뤄두다가 오늘 발표를 한 거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모든 국제사회 특히 주변 네 나라 또 6자회담 참여국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것은 국제 평화·안전에 중대한 도발이고……

○권영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모호한 얘기 그냥 에둘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협상방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PSI에 가입한다는 얘기를 아예 하지를 말든지, 얘기를 꺼내놨으면 그때 정해진 대로 우리 대응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북한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지난번에 미뤄졌습니까? 정부 측에서, 우리 유 장관께서는 바로 가입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가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뭐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간이 늘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여러 가지 고려요인이 있었고 또 그것은 어느 한 부서의 의견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 한 부서의 의견으로 결정이 될 수 없는 얘기를 한 부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당연히 가입할 것처럼 얘기를 한 것도 그러면 잘못된 거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논쟁할 게 아니고 협상의 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우리 정부 대응은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 미국하고 중국에는 통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사전에, 바로 직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아까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시대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쯤 알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가 안 것은 우리 관측소에서 인공지진파를 감지함으로써 우리가……

○권영세 위원 그렇다면 인공지진 감지한 것 말고 그 전에 해당 함경북도 핵실험지역의 영상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감지한 것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길주에서, 지난번 1차 핵실험을 한 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의견 교환을 죽 해 오고 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게 의견 교환을 한미 간에 할 정도라면 그리고 미국채널에 추상적이나마 한 시간 전에 통보를 했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데 헷갈려 가지고 상부 보고하는 시간이 늦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시간이 늦고 이렇다,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영상정보 이쪽은 정보사이드 쪽에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북한이 통보를 한 것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실무레벨에서, 그것도 어느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영세 위원 실제로 판단을 하려면 외교사이드 정보하고 정보사이드 정보하고가 합치돼야 하는데 미국도 그게 따로 따로 놀고 우리도 따로 따로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시차도 있을 수 있고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또 그것 분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처간 협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요.

○권영세 위원 미국채널에 추상적으로라도 이런 식의, '안보리가 지키지를 않아서 우리가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것을 통보한 적이 또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미국……

○권영세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가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그것을 좀 시리어스(serious)하게 받아들였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안보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 핵보유국이 되겠다라는 거다라는 게 외통부장관의 말씀이셨는데 통일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목적이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목적을 어느 하나를 딱 짚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외통부장관께서는 지금 핵보유국이 되겠다라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당연히 지금 북한은 핵을 갖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의도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은 사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핵보유국이 되겠다라는 게 핵을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아니니까 핵보유국이 돼서 뭘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권영세 위원 지금 방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미국하고 협상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북한 내부의 요인도 있고 이래서 좀 복합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외통부장관도 동의를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여러 가지 분석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은 공개적으로 2012년을 강성대국을 달성하는 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100년이 되는 해가 2012년이고 해서 소위 강성대국이 되는 길은 핵을 보유하는 것,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권영세 위원 그거야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북한이 아니니까.

대체로 추측에 근거해서, 가정에 근거해서 우리의 대응도 정해 나갈 텐데 그렇다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겠다라는 게 지금 당면목표라면 어떤 면에서 핵폐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절차들은 다 비현실적이고 지금 이상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통부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그렇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는 평화적인 수단,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함으로써 첫째, 우선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지연시키고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당분간에 있어서는 핵을 보유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일단은 상당 부분까지 핵 보유하고 또 그 이후에 상당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평화적인 일반적인 6자회담 절차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봐야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6자회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플랜B, 플랜A, 플랜C를 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세 위원 이제 안보리가 다시 열릴 텐데 거기에서 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미국, 일본은 추가 제재를 결의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논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조금 아까 오전에 송민순 전 장관께서 얘기를 하셨나요? '마른 수건의 물 짜기다'라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 중국이 크게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지난번 안보리 결의 1718호 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는데 거기 외에 추가적인 조치들 뭘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미사일 및 핵을 개발하는 데 관련된 북한의 관련 회사, 주로 무역회사가 되겠죠. 미국은 그때 12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중국의 반대로 3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핵을 개발하는 데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제재도 가능할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사치품도 북한 군부라든가 사기를 북돋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치품 같은 것 그런 걸 제재하는 문제도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물자, 이중 용도 품목의 범위를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결국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물자를 몰래 수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지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조금 아까 사람에 대한 제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사람에 대한 제재라는 것은 그런 데 관련된 인물을 누구 누구는 예를 들어서 출입을 거부한다든가 그런 것을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헌장 7장에 의한 제재를 결의하게 되면 유엔 모든 나라가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권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갑의 한나라당 김충환 위원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14일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이번에 북핵 실험을 했는데 이번 북핵 실험이 보도에 의하면 TNT 2만t급, 나가사키 폭탄의 3, 4배 이렇게 아주 상당히 위력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만 아직 그것은 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또 향후 2, 3년마다 계속 핵실험을 할 전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핵폭탄을

500㎏급 이하로 소형화해서 ICBM에 탑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중단시키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2012년까지 간다면 결국은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구체적인 저지를 못하고 간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북의 힘의 우위에 우리가 예속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국민들도 하고 또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 또 협상에 의해서 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이 모든 부품을 자력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특히 유엔 중심으로 그러한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이와 같이 우리의 외교적인 또 평화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런 무력을 증강해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미국이 우리 한국의 안녕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말하자면 핵우산의 공략을 확고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바로 그 점이 논의됐고 오바마 대통령은 확고한 한반도의 핵우산 제공을 천명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평화적인 노력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대답하신 것을 죽 보면 북한의 핵무장은 이것이 생존형 핵무장 즉 북한체제를 지키고 또 그것을 위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한 이러한 노력이라고 볼 때 과연 대화를 위한 핵무장이라고 핵개발이라고 보는 이러한 진단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의문, 의구심은 저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평화적인 해결, 외교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가면서 북한의 진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문제는 물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가장 큰 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 또 북한에게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지지 이런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좀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관계, 동반적인 관계를 해서 그런 정책 공조를 해 가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중국과는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은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중국과 아직 여러 가지 견해의 차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충환 위원 오늘 미국이 새벽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 보면 썼는데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을 통한 제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환 위원 뭐라고 하나요? 지난번에 북한을 해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깡패국가…… 뭐라고 하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테러 국가……

○김충환 위원 테러 지원국 해제.

그것 다시 지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

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현재 그것은 하나의 법률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지금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금강산, 개성지역 또 남북 민간 접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북이 이와 같이 남의 기대와 또 요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대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통일부장관 입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문제가 한두 번에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또 이 핵 문제만 엄중한 와중에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이번의 조치에서도 그것은 뺐습니다마는 하여간 근본적으로 좀 잘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성공단 역시 이것은 어느 한쪽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기에 호응해 나와야 결국은 같이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 어쨌든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 또 인력들에 대한 안전문제 또 그리고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잘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PSI 전면 참여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적정한 시기에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PSI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외교장관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PSI의 원칙을 승인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실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비확산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국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문국현입니다.

두 분 장관님 또 두 부처의 책임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크게 실망하셨죠, 두 분 다요?

또 지금 북한이 잘못된 코스로 들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까?

이번 것은 전부 미사일 이런 특히 그렇고 핵실험까지도 예고됐던 거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또 해상통제 협조까지를 말하고 기간까지 보면 정확하게 5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미사일 발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첫날인 25일에 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뭐 그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핵실험을 하는데 해상……

○문국현 위원 아니 일단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그래서 원산 앞에 해상통제를……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미사일은 130㎞의 단거리 지대지·지대공·함대함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소위 확산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문국현 위원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국현 위원 날짜까지 지정하고 25일에서부터 27일 사이에 하겠다, 그리고 그 첫날 한 거란 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데 그것은 핵실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문국현 위원 물론 핵실험은 그 이전에 4월 29일에 했고 그 준비 상태로 봐서 우리 정부에서는 2, 3주 안에는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순 이후 하순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문국현 위원 미사일도 그렇고 핵실험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두 분 장관님처럼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상을 할 수 없죠.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핵실험을 조속히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문국현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네가 발표한 일정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은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지 핵을 실험하는 일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징후들입니다. 그 징후는 별개지 우리가 워치한 것은 핵실험을 했던 장소에서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우리가 관측을 했던 것입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풍계리에 있는 동쪽 광구하고 서쪽, 2개의 실험장소가 있는데 하나를 전혀 안 쓰리라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한 정보사항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위원 아무튼 정부 당국자에 비해서 국민이 국제적으로 발표돼 있는 스케줄이라든가 정부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너무 못 미쳐 있어요. 그래서 놀라게 하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우리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은 북한이지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문국현 위원 그야 물론이지요. 북한이 잘못은 했지만 일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일일이 국민들에게 실황 중계를 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저는 아무튼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을 좀더 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북한의 스케줄을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시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국회와는 최소한 논의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면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언제 제시할 계획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것은 통일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대화를 언제,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의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문국현 위원 외통위안은 무시하실 건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것은 아니니까 그런 큰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핵우산, 그리고 미 군사력의 한국 보호 의지 그것은 어떻게 전하실 생각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국민들한테는 오늘 브리핑을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지금 한미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한미 FTA를 보다 잘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것이 경제교류 이상의 한미동맹 강화와 또 미래에 대한 공동 번영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대북 관리에도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좀 설득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고 그중의 하나는 개성공단처럼 나머지 경제협력이라든가 남북 교류협력은 중단시키거나 억제시킬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지 되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이고 또 지금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확고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저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개성공단에서

연간 북한이 가져가는 현금은 한 3000~4000만 불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임금으로 해서 대략 한 3500만 불 정도 됩니다.

○문국현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북한이 인력수출 말고 일반 무역에서만 외화수입을 올리는 게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대략 한 4억 달러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렇지요. 오늘 아침 다른 분은 5억 달러는 분명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수출이 빠져 있고 기타 수출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합해 보면 그래도 5억 달러~10억 달러의 외화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개성공단 가지고 좌지우지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5억에서 10억 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쪽을 눈여겨보면서 대책을 세워야지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교류만 가지고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시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무슨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개성공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성공단 문제는 결국 남북이 상호이익을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잘 노력을 해야 그 미래가 창출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그 점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개성공단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국현 위원 지금 북한에 미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사를 보내면 그게 통미봉남 전략에 들어가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자칫하면 특사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북한과의 거래를 못 하게 하겠다, 기대하지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이 특사를 마음 놓고 보내게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어떤 특사가 가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실 분이 있다고 보고 그중의 한 분이 빌 클린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어떤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국현 위원 지금 북·미 관계 개선 내지는 수교를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끝에 하는 방법이 있고 모든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다 두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다 두는 방법이 좋다는 의견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통일부장관님하고 외교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는 지금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6자회담에서 죽 진행되었던 각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남아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런 과정이 유효하고 6자가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문국현 위원 외교부장관님, 불가능한 겁니까? 이 북·미 수교, 관계 개선이 앞부분으로 먼저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것은 미국의 외교적인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마는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하는 실익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미 천명한 듯이 북한의 비핵화, 인권, 이런 것이 개선돼야 미·북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한미 간의 관계 개선하고 또 국민과의 대화, 의사소통 개선에 두 분 장관님께서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문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유명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1990년 EASI, 동아시아전략구상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동아시아전략구상에 의해서 1991년~1992년 사이에 주한미군 7000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또 제 2단계로 93년~94년 사이에 전시작전권 전환에 의한 한미연합사 해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당시 93년도에 1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인해서 모든 게 백지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 10월 9일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고 어제 그 위력 면에 있어서 30배에 달하는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6월 16일날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우선 한미군 당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시작전권 이전 관련해 가지고 매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검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통해서 부단한 리뷰……

○윤상현 위원 매년 우리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의 상황은 너무나도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작권 전환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말씀을 검토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 그리고 PSI 전면 참여 선언이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중용도 기술의 이전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WMD 확산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MD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국제적인 합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재 무려 95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PSI가 작동 중에 있고 이것이 정식 제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면 그에 준하는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PSI 참여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PSI의 이런 개념을 고의로 무시하고 PSI가 마치 북한에만 국한된 양 대북 대응책으로만 왜곡, 축소 해석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모든, 심지어 우리나라의 선박에도 해당이 되고 미국 선박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 예, 맞습니다. 지정하는 게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WMD 개발을 확산하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위험한 국가입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핵, 미사일, 또 화생방, 화학·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미사일을 계속 수출해 왔고 핵기술을 수출해 왔습니다. 또 외화벌이를 위해서 WMD를 판매할 것임을 밝혀 왔습니다.

또 최근에 5월 3일인가 조평통 성명을 보니까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위해서 우라늄 농축 핵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 핵개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PSI는 필요하다, 또 유엔 결의 1718호의 8항을 보면 WMD와 미사일의 판매와 이전 금지, 화물검색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PSI를 참여해야 된다, 결국 유엔 결의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 PSI의 전면적 참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MD가 테러리스트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한테 판매됐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WMD를 확산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엄연히 있는 사실조차 고의로 감추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겁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 PSI 전면 참여한다고 해서 북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북한은 미사일 핵개발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용도 품목, 또 위험물자의 수출입을 차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 또 미사일 능력 개발을 저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이 어제 핵실험을 하는 데에 무려 3억 달러의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북한이 그 돈을 조달하는 길은 WMD와 미사일을 판매하고 또 그 부품과 기술을 이전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게 바로 PSI입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돈이 조달되지 않게끔 하는 게 결국 PSI 참여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특히 북한이 WMD와 미사일의 부품과 기술을 판매하는 국가인데 북한을 통제 못 한다고 해서 WMD 확산을 방지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구매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PSI에 참여함으로써 구매 국가를 당연히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파는 국가, 북한이 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할 수 있고 기술 이전·확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논리로 얘기하면 PSI는 북한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국한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 5일날 로켓발사 이후에 유엔 결의안 1718호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장 성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제 핵실험 이후에는 1718호보다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북한이 3년 전 1차 핵실험 때는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날 로켓 발사 시에도 사전에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런 예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 군부 특유의 테러가 없는 도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북한은 그 시점을 자기 나름대로 전술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좀 예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도발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김정일이 자신의 절대권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특히 군부가 이미 계획된 도발 시나리오를 차곡차곡 계속해서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통일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장성택이 국정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그 위치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번에 새로 개편된 국방위원회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다만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두 분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이 중복이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워낙 사태가 위중하고 그래서 저 역시 같은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하시고 또 답변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은 다 해 주십시오.

저도 PSI에 관한 코멘트를 먼저 하고 질문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늦긴 했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또 확실하게 참여를 빨리 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PSI에 빨리 참여를 해야 된다고 다 해 놨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준비한 게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한번 보니까 대통령께서 PSI에 곧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7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승수 총리는 2번 하셨더군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외교부장관께서는 9회에 걸쳐서 곧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참여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

다.

○구상찬 위원 그리고 별로 관계가 없는 듯이 생각했던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도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하셨더군요. 그래서 늦기는 했지만 PSI 참여를 잘 하셨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의 정치상황 등은 전혀 북한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상 중에 핵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이번 2차 핵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북한이 핵무기 무장에 대한 목표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고요, 또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급변하게 될 한반도 안보상황이 예상됨에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 온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저는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다음 달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문제는 반드시 회의 어젠다로 선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살펴보면 현재 전작권 전환 계획은 2005년 9월부터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스스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좋은 명분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면서 군사·안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언부터 먼저 했다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여기가 국방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군병력을 감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들어가서 보니까 첨단 전력무기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도입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글로벌 호크(Global Hawk)하고 요격 미사일 등 여러 가지 대북 감시 전력의 도입이 전작권 이후로 다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서 반드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회의 어젠다로 들어가서 이것이 연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어젠다에 넣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어젠다에 넣겠다는 말씀은 끝까지 안 하시는구먼요. 아마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얼마나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지 장관께서는 참고하시고 꼭 어젠다에 넣어서 이런 것은 연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주무 부서인 국방부에 구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안전보장회의 의장이 누구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맡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국방부장관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의장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셔서 꼭 어젠다에 넣어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 북한 핵실험이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유엔이나 세계 각국에서 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통일부장관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이 지금 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을 때, 이때 중국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 1차 핵실험과 다르게 중국에서 상당히 강한 논평이 나왔고 또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워딩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거든요. 이럴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것이 미사여구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중국이 벌써 북한 핵실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 이번에 중국 외무부장관이랑 회담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지적했듯이 장관급이라든지, 차관급도 좋습니다. 중국에 직접 가서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을, 아산 직원을 데리고 나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핵실험까지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자회담에서 장관께서 만나서 회담하는 것하고 또 우리 남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받을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두 분

중의 한 분이 직접 특사로 가셔서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중국의 협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 두 분께서 한 분 정도는 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핵실험을 하고 중국에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 이럴 때 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현대아산 직원이 억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중국을 통해서, 미국이 스웨덴 대사를 통해서 면접권을 받아내듯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받을 가장 적절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들께서는 대통령 특사가 아니더라도 특사 자격으로 가셔서 중국의 많은 지원을 받아낼 적절한 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기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황진하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제가 양제쯔 부장하고도 수시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두 장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님 대답하시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우리가 지진파 탐측한 것, 또 미국 등 여타 일본 이런 지진관측소에서 한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CTBTO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의 분석도 비슷한데 다만 그것이 핵실험이었느냐 하는 것은 자체의 과학적인 증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분석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핵실험 했을 경우에 나오는 물질을 실질적으로 채증을 해야 그것이 확실한 핵실험이냐 아니면 여타의 다른 폭약실험이냐 하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물적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미 측에서는 지금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발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의 얘기는 안 한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미국 정부의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최소한 우선 이것이 핵실험이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데는 방사성핵종, 레디오뉴클라이드(radionuclide)라고 하는 그 물질을 하는 데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그쪽 지역의 풍속하고도 관련이 된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관측을 할 수도 있고 또 미 측에서 관측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만 해도 한 5~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우리 지진연구소에서 파악한 것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충격파, 그 진도를 갖다가 4.4로 최초에는 4.5로 나왔다가 지금 4.4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일본에서 탐지한 것을 보게 되면 5.5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 4.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다고 해서 더 진도를 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탐지한 진도 수치가 제일 낮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확인하신 게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CTBTO 기술사무국에서 알려온 바에 의하면 리히터 지진계 4.53으로 그쪽에서 분석하고 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한 것하고 가장 근접한 수치가 됩니다.

○黃震夏 委員 제가 앞서서 장황하게 질문드리

고 과학적 근거를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 능력을 발전시켰다고 자꾸 발표를 하고 오히려 선전에다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은 이런 기색이 보이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 데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발표한 것이 새벽 5시 57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핵실험을 했다고 나와 있는 시간이 9시 45분입니다. 한 4시간 만에, 그러니까 조전을 보냈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통신사를 통해서 4시간이 채 못 돼서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아무리 북한이 그러한 예의범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이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심히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黃震夏 委員 이것에 대해서 참 북한의 뭐라 그럴까 두 가지 얼굴 뭐 이렇게 쓴 기사들도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번 규탄한 적이 있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정부가 그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성명을 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북한의 의도가 점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라는 것은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프로그램도 다 폐기 시키고 이렇게 가는 목표를 가지고 갔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가고 핵 보유국이 돼 가지고 핵 군축 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6자회담 무용설이 자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중국이 발표한 것 보게 되면 북한 핵은 분명히 반대라고 하면서도 6자회담의 유용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을 유지시키면서도 비핵화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중국은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6자회담 전망과 그 유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록 외교적인 국제공조 즉,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6자회담에 대한 지금 중국·러시아·미국·일본의 입장 또 우리의 입장이 모두 같기 때문에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현 단계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 나가면서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플랜 B, 플랜 C를 동원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국제공조를 더 탄탄히 하고 한미 관계의 결속을 탄탄히 하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강력하게 정부 측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아젠다에다가 우리가 이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이런 집요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봉쇄시키거나 저지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우산 강화, 핵우산 제공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핵우산 제공 이렇게만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냐, 핵우산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을 양국이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작권은, 지금 북한은 계속적으로 위협을 고조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국 간에 합의가 된 거니까 전작권은 그냥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거나 의지가 없는 그런 반응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주 대단히 안타까운 표현이고 아쉬운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서 분명한 목표는 한미가 어떻게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핵보유국화 되려거나 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서브스탠스(substance)를 분명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핵우산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하느냐, 전작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어떠어떤 것을 더 강화시켜서 안보리에서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등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유념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송민순 위원님, 정옥임 위원님 또 김충환 위원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또 언론뉴스를 통해서 새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북한이 동해에서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입니다.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오늘 오후에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사실이 정보 당국에 포착이 돼서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130여㎞의 지대공 및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어제 세 발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부 다섯 발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오전에 상임위 벽두에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오늘 이렇게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 점도 참작하셔서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외교부장관님, 9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핵실험을 몇 번쯤 했는지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송민순 위원 여러 번이 각각 한 5회, 6회 이렇게 했고 지금 북한이 핵개발하고 있는 양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핵실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그러한 전제하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정보 당국의 판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송민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같이 막는 데는 단순히 우리가 무슨 결의안이다 또 지금 효과가 그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 안보리 제재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유감스럽게도 아침에 신낙균 위원께서 유 장관님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그런 근본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더니 유 장관님께서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우리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해 갔느냐라는 데 의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리 프로세스라든지 또 6자회담에서 9·19성명이나 2·13 공동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유명환 장관님 자신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깊이 이렇게 관여를 하셨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문제로 간주해 왔는지 의문이 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참으로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전에 있었던 제네바합의라든지, 또 저는 지금도 한미 공조만 강조하고 우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난번 통일부장관께도 우리 정책이 이게 진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격세유전성 같은 그런 정책이 아닌가, 과거에 하던 정책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요.

유명환 장관님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자기가 몸을 담고 중요한 직책을 지냈던 지난 10여 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야기하

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 안팎이 말씀이지요 상당히 엄숙한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대비를 시키고 폄하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 현 정부의 정책에 맞추는 방법에 그런 폄하보다도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생각이 든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핵우산 논리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핵우산 논리 같은 것을 자꾸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상대일 때 소위 상호 확실 파괴성 원칙에 의한 핵우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을 두고 이러한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북·미·중 이렇게 대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우려를 표시하고 일종의 얼리 워닝(early warning)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자격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한미 공조만 굳이 강조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갈 개연성이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까 작전통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깊이 잘 판단을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은 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간에 포괄적인 안보상황을 계속 평가하면서 결정해 온 사항인 만큼 그것을 잘 돌이켜보고 정부, 여당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캄프리헨시브 시큐어러티 어세스먼트(comprehensive security assessment)에 따라서 해 왔다는 것을 좀 알게 해서 이런 문제들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를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답변을 제가 들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좀……

○위원장 박진 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조금 제 말의 진의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부처의 어느 정책을 제가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과거에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이 남북 관계를 주로 하고 모든 대외정책이 종속변수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매년 대북지원을 예산으로서만도 1조 5000억, 약 15억 불이라는 많은 지원을 해 왔고 또 한국과의 거래, 여러 가지 사업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수입 현금소스였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도 북한의 통계를 보면 무역적자가 한 12억 불이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메우느냐 하면 절반 이상을 한국으로부터 메우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북한으로 교역에 의해서 네트(net)로 전달된 외화가 5억 4000만 불입니다. 그 외에 또 추산이 다 나옵니다만 일본에서 들어가는 돈 또 불법무기 거래에 의해서 들어간 돈 또 외상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연 정책에 있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더 우선순위를 줘 왔느냐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 대외 외교정책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줘 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 리뷰를 해 보자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두 번째로 핵실험을 함으로써, 지금 송민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핵실험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지각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드디어는 미·북 협상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적화통일 이러한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그런 것이지 절대 어느 한 사람이라든가 어느 기관을 정해서 그것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 보면 가뜩이나 경색국면에 놓여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이미 임금인상이라든지 토

지사용료 지불을 요구한 상황이고 향후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파업이라든지 철수라든지 통행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지금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는 다행히도 보험에 가입된 기업들도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수치적인 가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극단적인 상황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개성공단을 민족공영의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을 일단 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어떤 상황이어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그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개성공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 정부는 개성공단을 일단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바닥도 두들기고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성공단을 잘 발전시키겠다 해도 북한이 거기다 호응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저희들의 개성공단 발전의 의지를 제대로 읽고 나와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남북 상호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결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委員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실험이라든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극단적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가 남북 간의 화해·협력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입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또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화생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게 될 경우에 북한 내부의 정권의 승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우발적인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 북한 내부에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화해·협력은커녕 우리의 안보를, 계속해서 목줄을 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에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적어도 북한 내부의 엘리트 그룹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화해·공영의 의지를 좀 명확히 메시지를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해서 군부의 누군가는 핵무기 개발과 같은 강경한 조처를 취하는 그룹이 있겠지만 희망컨대 북한 내부의 북한인민들을 살게 하고 북한체제의 존치를 위해서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엘리트 그룹이 있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진정성을 한번 제대로 메시지를 보낼 의향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관해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화해·협력을 하겠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처럼 핵개발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한 아마 화해·협력에는 굉장히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점을 북한이 심각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북한은 미국의 평화지향성 또 유엔체제의 비실효성 그리고 한국의 전쟁 회피 태도 등을 미리 알고 지금과 같은 도발행위를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또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김충환 위원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엔, 한국이 별 실효성이 없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더라도 대응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북한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 북한이요?

○김충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해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느냐 이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세 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 외에는 구사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 여건이 또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김충환 위원 하여튼 좀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과거보다는 매우 강경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각각 정부에서 발표한 성명, 반응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기대 플러스 알파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6자회담이 안 된다면 우선 5자회담이라도 해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구상도 제안이 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국인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충환 위원 오늘 오후에 북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전투동원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곧 서해안,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고 했는데 이제 서해안에서 도발할 우려가 크지 않느냐, 또 한국이 PSI에 전면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선전포고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대응을 좀 확실하게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비핵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핵 개방 3000에서 이 3000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 또는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비핵 개방 3000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 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남북 대화나 협력이나 경제협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비핵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과연 비핵 없는, 즉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남북의 협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상상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같이 갖추면서 동시에 남북이 협력하고 그 기반에서 공존과 공영을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성공단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서로 신뢰 관계가 없는 가운데 계속 하자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것을 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점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초를 새롭게 해서 서로 신뢰가

있을 때는 비핵 개방 3000이니까 핵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3000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 가지고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남북 간의 협력, 그것이 개성공단이든 또 어떤 다른 협력이든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지금 당장에 어렵다 해서 이런 문제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좀 진지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몇 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30분 전이라고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정확하게 그것을 몇 시 몇 분에 받고 이런 것은……

○박선영 위원 아무튼 오전에 30분 전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보기에는 9시경이라고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박선영 위원 9시경이면 거의 1시간 전이네요, 9시경이면. 그러니까 30분 전도 아니고 1시간 전이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직도 확인 안 하셨나요, 오전 내내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시간을 몇 시 몇 분까지…… 한미 공조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선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1차 핵실험 때는 20분 전에 북한이 중국하고 미국에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오전에는 30분 전에 북한이 통보해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시경이면 실제 있었던 것이 9시 54분이니까 거의 1시간 전에 통보를 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 두 나라 다 아무런 통보도 안 했습니까? 정말 저는……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는 '북한이 미국에 언제 통보를 했는지를 아신다면 그런 질의를 못 하실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마치 몇 초 전에 통보를 받은 것처럼. 정진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30분 전에, 제 질의에도 30분 전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9시경에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1시간 전에 통보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미국하고 중국은 1시간 전에 통보를 받고 혈맹인 우리에게 그 통보를 안 해 줍니까? 국제공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NSC 회의 몇 시부터 시작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그것은……

○박선영 위원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현인택 1시 반입니다.

○박선영 위원 1시 반부터 시작했지요? 몇 시에 끝났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3시 반……

○박선영 위원 3시 반 다 되어서 끝났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두 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는요, 9시 54분에 우리 기상청이 즉각 인공지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9시 54분, 10시라고 합시다. 10시에 확인이 된 인공지진에 대한 NSC 회의를 1시 반에 합니까?

그동안 누누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정해 놓고 그에 따른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장관들이 이 자리에서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매뉴얼이 다 되어 있는데 10시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좀 늦어서 10시에 알았다 하더라도 3시간 반 후에 NSC 회의를 하고 그 회의도 2시간이나 걸려서 나온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과

가 아무것도 없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입니까? 위기대응능력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공조의 허점과 그 문제점이 드러났고, 두 번째로는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부에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말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우리한테 쏘았더라면 또는 동해나 서해가 아닌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지금 개성공단에 몇 명 있지요? 우리 근로자들 하고 우리 측 인원이, 우리 국민이 몇 명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 830여 명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다음에 평양이나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국민을 다 합하면 922명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앞으로 이렇게 긴장관계를 높여가면, 지금 벌써 두 발 쏘았어요. 어제 5시 넘어서 쏜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늘도 몇 개를 더 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을 계속해서 인질로 잡아둘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농후한 거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민의 신변안전을 저희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들이 일단 개성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출입은 지금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들어가는 사람만 가지 말아라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우리 결정에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영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지금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분명히 북한이 알아서 고용해 주고 북한이 알아서 근로자를 빼도록 되어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개성공단에 관한 한은 대한민국의 의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북한이 알아서 근로자도 대주고 북한이 알아서 통행도 열어 주고 닫아 주고, 우리 대한민국은 돈을 대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을 지금 잠재적인 인질로 900명 이상을 북한 땅에 두고 있습니다.

'경협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사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모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난번 개성공단의 세 번째 차단조치와 그리고 저희 근로자의 억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것이 실효적으로 이행이 되어야만 개성공단의 미래가 앞으로 밝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영 위원 개성공단 합의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지금 만 1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그것의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조차 우리 정부가 없어요. 제2, 제3의 유 某 씨를 계속 만드실 것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을 닫겠다라고 왜 우리는 주장하지 못합니까? 왜 국상 중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엄중하게 유감표명을 하고 사과요구를 못 합니까? 우리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사과요구조차, 엄중 경고조차 못 하나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한 차례 돌았습니다. 보충질

의 신청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정옥임 위원님이 계신데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PSI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북해운합의서와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에 근거해서 향후에 PSI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든다면 해양경찰이라든지 해군의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PSI 활동에 관한 국내 근거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그렇고 국방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이양받게 된 계기는 지난 정부에서 좀더 자주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했습니다마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물론 미국의 핵우산의 적실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더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에 재검토라는 절차는 있지만 예정대로라면 우리가 이양을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공약에 더 의존하는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북한 문제를 대하게 되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눈물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더 솔직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1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특히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아까 추상적으로 의제가 뭐냐라고만 질의를 드렸는데 핵우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미국으로부터의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과연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지난 정부에서 자주를 표명하면서 이양 받은 통제권이지만 과연 이것을 다시 되물리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상당히 한미 간에 솔직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국내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핵우산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좀 역설적인 관계에서 과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쌍방이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1.5 트랙이나 학계·민간 트랙에서 좀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레벨에서도 이러한 여론의 주의를 항상 민감하게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항상 귀도 열어 놓고 눈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북한의 핵무기 획득 시도를 차단하려는 그 눈물겨운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에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활동에도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는 것에 대한 평화적 재활용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계획도 막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가 다 인정받고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마저도 북한 때문에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과 좀 솔직한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간에는 파이로우 프로세싱(pyro processing)에 관한 공동 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다소의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핵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의 주권·권한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장기적인 국익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에 정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본 위원이 특히 정부에 간곡하게 요구하는 바는 특히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 그리고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권한을 되찾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미경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문학진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이상 네 분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오후에 북한이 동해에서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서해 지역에서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행위를 자행을 하고 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질의와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상임위원회 자리를 지켜 주신 박선영 위원님, 정옥임 위원님 그리고 김충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님 그리고 현인택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부처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구상찬	권영세	김충환	남경필
문국현	문학진	박상천	박선영
박주선	박 진	송민순	송영선
신낙균	윤상현	이미경	이상득
이춘식	정동영	정몽준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진 영	홍정욱
황진하			

○청가 위원(1인)

정세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장관	현인택
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정세분석국장	양창석
남북교류협력국장	김남식
통일교육원장	홍재형
남북회담본부장	엄종식
대변인	천해성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최보선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조정기획관	최연호
다자외교조약실장	오준